

게리 미도어스 박사, 고린도전서 32강, 고린도전서 15장, 사후세계와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응답.

© 2024 게리 미도어스와 테드 힐드브랜트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32강, 고린도전서 15장, 사후세계와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글쎄요, 오늘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우리의 강의를 계속하고 고린도전서 15
장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Biblical e-learning 사이트에서 가져와야 할 노트패드
번호 16이 포함됩니다. 221페이지가 될 겁니다. 시작 페이지입니다.
오늘은 그 장을 다루어야 합니다.

긴 장이지만, 다시 이야기식 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어도 이 강의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모든
장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지만, 우리는 종합을
제공하려고 하며 주석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앉아서 그것을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지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종류의 작업은 당신에게 맡기고 이 장의 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14장의 마지막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14장의 마지막은 33b에서 35장까지의 여성 구절의 검증
문제였지만, 37절과 38절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충분히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는 도전을 받았고, 우리는 2장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의 권위, 다양한 수준에서 그의 가르침의 적절성과 정확성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4장 37절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을 선지자나 영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영적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지칭하는 네 곳 중 하나이며, 자신을 영적 사람으로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 곧 그것들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하라.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그는 무지할 것이다. 요점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확실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따르면 그는 그것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공식적인 번역에서 38절의 요점은,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두라는 것입니다.

NIV와 다른 몇몇 곳에서는 그게 매끄럽게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래된 번역을 좋아합니다. 요점은, 청중이 바울의 가르침을 권위 있고 신성한 중요성과 질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화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자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대화를 나눌까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인식론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인식론에 호소할까요? 글쎄요, 기독교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갈 곳이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우리의 권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리고 그것 없이는 우리는 표류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우회하고 싶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설교단에서 절반도 읽지 않습니다. 마치 설교문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4장 마지막에 그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15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는 다른 종류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paradeph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떠들썩하게 말할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린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보이는 몇 가지 진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15장에서 신학적 편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협상할 수 없는 신학적 진실입니다. 그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다룹니다. 당신이 지나치게 신랄하게 말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동시에 절대적으로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14장 마지막에 12장부터 14장까지를 마무리하는 것도 바울이 부활의 사실에 관해 권위 있게 가르친 배경을 마련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공동체의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거나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서 221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섹션 요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5장 1절과 2절이 15장 58절과 균형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서사 형식으로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매우 매우 긴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본문의 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미국 표준판 본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15.1절에 형제들에게 알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고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경계를 이루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고 물론, 그것은 형제 자매들입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아는 만큼. 그래서 우리는 이 장의 시작과 끝에 자연스러운 경계를 두었습니다. 마치 책받침처럼 우리가 여기서 단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매우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바울은 부활의 세 가지 주요 측면을 다룹니다. Talbert의 전형적인 구조적 분석은 다른 많은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1장부터 15장까지 바울은, 실례합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 12절에서 34절까지 그는 고린도인들에게서 나온 몇 가지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 중 하나는 그들이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죽은 자의 부활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35절에서 장의 마지막인 58절에서 다른 두 가지 고린도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부활의 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특정한 순서대로 이것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논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메시지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15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알게 하였노라. 너희가 그것을 받았고 또 그 안에 서 있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내가 전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는 경계 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11절과 경계를 이룹니다. 11절은 "그러므로 나든 그들이든 우리는 전파하고 선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선포로 시작해서 11절에서 선포로 끝냅니다.

있습니다. 전파하다 또는 선포하다 라는 단어 입니다. 내가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렸노라.

그것은 euangelizamai 입니다. 우리는 euangelion 이라는 단어를 얻습니다 . Euangelion 은 복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입니다.

Euangelizamai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된 용어가 됩니다. 받은 말씀.

우리는 이 용어에 대해 이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 단어는 사실상 전통의 수용과 관련된 기술 용어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의 수용.

그리고 당신이 서 있는 곳. 서 있다는 것은 당신이 자리 잡았다는 것에 대한 은유와 거의 같습니다. 당신의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은 자리 잡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 그리고 그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은 수사학적 문제입니다. 단어 if는 수사학적 맥락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청중에게 읽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곳입니다 .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이런 수사적 문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중이 생각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요.

알다시피, 당신이 서 있다면, 당신이 강하다면. 내가 당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그것은 청중이 성찰하도록 자극합니다.

그들은? 그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그 말씀에서 벗어났습니까? 이제 이것이 고린도인들에게 읽혔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아마도 이 문제에서 벗어났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해 논의될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이전 가르침을 굳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귀는 곤두서게 될 것이고, 그 특정 문제로 그들을 매트에 앉혔을지도 모르는 회중의 다른 사람들도 곤두서게 될 것입니다. 222페이지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가지 역사적 관점에서 확증됩니다. 15절 3~8절은 흥미롭습니다.

그리스어에는 NIV와 같은 것에서 잘려나갈 문장이 하나 있지만, 실제로는 긴 문장 하나예요. 3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였노라. 또 다른 핵심 용어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지내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동태 동사로, 종종 신성한 수동태, 하나님의 행동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성경에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문장은 실제로 8절 끝까지 이어지지만, 게바에 대해서는 5절에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선포입니다. 저는 받은 것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받은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한 번 전통과 연결해 줍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백적입니다. 고백의 본질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겠지만, 누군가가 세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이러한 문제에 반응하거나 세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그가 묻히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들은 초기 교회의 고백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따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흥미로운 진술입니다. 그는 성경에 따라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일로 이어집니다.

5절에서 8절까지는 목격자들, 1세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역사적 목격자들에 대한 다소 정교한 진술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따라 이것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구약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과 베드로가 있는 지점에 있으며, 베드로후서는 그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생산하고 공동체에 제공하는 것이 성경 자체라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표면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성경에 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공동체에서 유포되고 있는 글이 사도들의 친절한 편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구약과 동등한 수준의 성경이라는 의식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 문학 중 일부를 언급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50년대 중반에 전부 다 나온 건 아니었을 겁니다. 마가복음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은 유통되고 있었고, 아마도 아람어나 히브리어로도 유통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복음서의 구전 전통이 잘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그것을 구약과도 연결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이 메시아적 구절을 풀어놓기 전까지는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지만요.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아마도 구약에서 주님의 종 모티브로 알려진 것을 언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주님의 종 모티브를 언급합니다. 복음서는 주님의 종의 관점에서 예수의 세례를 묘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나사렛에서 한 설교에서도 그 모티브를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에드워드 퍼지는 바울이 그리스도 이후에 주님의 종이라는 생각의 도전을 집어 들고, 예수의 메시지의 사절로서 계속 활동하는 그리스도와 비유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한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한 생각과 성경에 따라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을 종의 임무의 성취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 이것은 많은 귀, 특히 유대인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한다고 이해했고, 이스라엘은 민족으로서 주님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52장과 53장은 초기 교회에서 메시아적 텍스트로 여겨졌고, 주님의 종인 예수 자신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표하는 것에서 사람을 대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약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일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은 성경의 이러한 구절 중 몇 개에 대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께서 에마오로 가는 길에 있는 제자들에게 구약성경을 열어주시고, 그 성경에서 자신을 꺼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정 강의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더욱이, 그분은 성경에 따라 죽으셨고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서에서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까지 무덤에 계셨다는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언급합니다. 사흘 밤낮과 사흘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의 죽음, 매장, 부활의 연대기 연구에서, 그 배경에서 셋째 날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이전에 Dallas Seminary에 재학 중이던 고인 Harold Hohner는 그리스도의 삶의 연대기적 측면에 대한 작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수난주간의 연대기에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가 부활한 때에 대한 장을 이 시점에서 읽어보면 좋을 것입니다.

셋째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는 핵심 용어가 되며, 특히 금요일 십자가 처형과 일요일 아침 전이나 일요일 아침에 부활하는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셋째 날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해진 전통과 과학적 역사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역사적 보고이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활 후 나타나신 모습과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날, 오순절보다 약 10일 앞서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쳐놓아서 안 될 타당한 역사적 보고입니다. 우선, 전통적 역사, 이 15:3-5의 문제는 초기 호밀로기아, 교회의 초기 고백의 일부인 듯합니다.

이런 종류의 진술은 교리문답으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새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진술 중 다수가 신약에 나옵니다. 고백적 진술은 살아남았습니다.

콜로새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있습니다. Neufeld가 쓴 *The Early Christian Confessions, the homology of the New Testament*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Homilogia 는 같은 말을 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이며, 고백이라는 용어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신약성서에서 표면화되는 것이 흥미로운데, 초기 기독교인의 신앙 체계의 발전과 그들이 세례와 그 세례와 관련하여 일어난 고백을 통해 어떻게 새로운 개종자에게 그것을 주입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석을 읽으면 케리그마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222페이지 하단에, 저는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케리그마. 케리그마는 선포한다는 뜻의 그리스어입니다. euangelizami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뜻인 것과 같은 또 다른 용어입니다.

케리그마는 초기 교회가 선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주석을 읽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초기 교회가 그리스도, 특히 그의 죽음, 장사, 부활에 대해 전파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포한 것은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과학적 역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게바에게 나타났는데, 물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이제, 미안합니다. 당신의 노트에 넣어야 했을 겁니다. 예수가 부활한 후 나타난 것은 그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11번입니다. 그리고 그의 승천은 물론 그 중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11번뿐이고, 그것은 40일 기간인데, 오순절은 유월절보다 50일 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0일을 가지고 있고 11번만 나타납니다. 게다가 예수의 부활 첫 주에는 7번의 그러한 나타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큰 격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무덤에 있던 여성과 베드로에게만 비밀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의 모습을 알아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달 이상 그렇게 적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인상 깊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전도자가 되셨고, 지상에서 가르치실 때처럼 많은 군중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는 이제 그의 추종자들에게 지휘봉을 넘겼습니다. 우선, 그는 그 주에 다락방에 있는 11명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토마스와 같은 이야기 중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낚시를 하고 있을 때 낚시를 마치고 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배의 반대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비록 그가 해안을 다시 볼 수 없었을지라도, 그는 명령과 성공으로 주님이심을 압니다.

그들은 불 주위에 앉아, 원한다면 옛날식 튀긴 생선 요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시다. 그는 거기에 있었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에마오로 가는 길도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휘봉을 넘겼고 이제 사도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지의 선포에 책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나타난 것은 물론 승천 때였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듯이 500명이나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룹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9절과 10절에서 바울에 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말합니다. 나는 사도로 불릴 자격이 없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진 그의 은혜는 헛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나니,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우리는 게바와 야고보의 출현과 다른 사적인 출현을 보게 되고, 그의 승천을 위해 모인 자들의 출현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에 대한 자기 인증 간증에서 이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그의 사도직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11절에서 계속 나아간다. 그때는 나인지 아니면 그들이든, 다른 사람들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는 전파하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는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그 사도 공동체, 예수 of 증인들에 대한 언급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의 전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로부터 이 간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으며 지금은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묶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과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첫 번째 간증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부활의 또 다른 측면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지상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12절에서 24절까지의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저는 오늘 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전파된다면, 여러분 중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이번에는 인용문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간접 인용을 사용합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공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약간 다른 형태로 표현합니다. 질문은, 왜 누군가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12절에서 19절까지 부활을 부인하는 것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의 그 주장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글썄요, 13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이 이야기의 특성상,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일종의 런닝 코멘트를 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암묵적으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부인한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로마의 배경에서 육체적 부활이라는 개념은 그들에게는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구약성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한 선구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강조된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암시적인 구절이 몇 개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부활의 사실에 대한 완전한 배럴 프레젠테이션을 얻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전파가 헛된 것입니까?

기독교 메시지의 타당성의 기초가 되는 모든 판자는 그리스도의 부활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증거했듯이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전혀 기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헛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매우 직설적입니다. 전파, 선포는 헛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 전체가 훼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됩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을 보았는데, 만일 그가 일으키지 아니하셨더라면, 만일 죽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스도도 일어나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은 반복입니다.

그는 광범위한 서사 방식으로 자신의 요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죄 속에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효능이 없다면 우리가 선포한 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랐을 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의 부활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출판물이 많이 있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부활의 중요성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변증적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심지어 1800년대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무신론자였던 몇몇 사람들이 스스로 복음서를 평가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연구 과정에서 정경 복음서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주장의 증거, 정당성, 타당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쳤거나,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부활이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부활이 없고, 기독교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프로젝트 전체가 망가집니다.

더욱이 바울은 19절에서 이 고린도인들의 근시안적인 견해에 대해 대답합니다.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바랐을 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이 삶이 전부라면, 내세는 없다는 뜻입니다. 미래의 삶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했고, 바울은 서신에서 몸에서 떠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인의 주장은 우리가 미래에 희망이 아니라 지금 희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라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종말은 없습니다.

오직 지금뿐입니다. 20절에서 34절까지의 바울의 답변은 또 다른 긴 답변이지만, 서사적 스타일에서 긴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는 부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 전에도 흥미로운 부활이 몇 번 있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엘리야를, 제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세요, 죽은 시리아인의 무덤에 던졌고, 그는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나인의 과부의 아들도 있습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흥미로운 부활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것은 신학적 구성인데,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부활한 사람은 누구나 필멸의 몸으로 부활했고 다시 죽었어야 합니다.

이것을 나사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신학적 사고에서 소리 내어 추구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활한 첫 번째 사람이고,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있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몸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영역에 적응하고, 벽을 통과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한 몸으로 온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흥미로운 작은 세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생선을 먹었지만, 부활한 몸으로 그런 종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글썄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아닌가요? 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몸 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21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

그래서 바울의 이러한 부활 부인에 대한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자의 부활을 확증한다고 확인하고, 20~28절에서 그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끝이 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왕국을 넘겨줄 것입니다.

그는 23절에서 부활의 명령에 대해 말합니다. 25절, 그는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통치해야 합니다. 폐지될 마지막 원수는 사망입니다.

죽음은 에덴 동산에 왔고, 지구 역사의 끝은 죽음의 폐지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복종시켰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것을 그에게 복종시킨 그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에게 복종되었을 때, 아들 자신도 복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나리오에서 모든 것이 아버지 께 넘겨집니다 . 29절은 두 번째 요점인데, 여기서 이상한 요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종말의 종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29절,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은 자들이 전혀 부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왜 죽은 자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가? 왜 우리도 매 시간 위험에 처해 있는가?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한 우리의 희생이다. 이제, 우리 모두는 29절이 이 글의 흐름 속에서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바울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원래 공동체의 시나리오는 무엇이었기에 여기서 언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모든 주석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들이 말했듯이, 그것은 악명 높게 어렵습니다. 그는 모든 견해는 잠정적인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든 주석가인 고데는 이 문구에 대한 30가지 해석을 세었습니다.

Thistleton은 이 단계에 대한 13가지 타당한 제안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일부만 223페이지 하단에서 언급했듯이, 이 문구는 죽은 자를 대신하여 의미할 수 있습니다. Fitzmeyer 는 이를 대리 세례라고 부르는데 ,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친구나 친척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속적 세례입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은 없지만, 그것이 한 가지 견해, 주요 견해, 대리 세례입니다. 이 견해를 어떤 사람들은 대리 세례라고도 부릅니다.

Thistleton의 주요 프레젠테이션을 읽어보면 일부 견해가 많은 하위 집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리 또는 대리 세례라는 생각은 아마도 대다수의 의견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매우 흔하지만 아마도 너무 표면적인데, 사람들이 죽은 친구나 친척의 간증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유죄 판결을 받고 사라 이모가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믿지만, 이제 그녀는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녀를 기리기 위해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작가가 말했듯이,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 때문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부활에서 그들을 만날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답변에 대한 대중적인 종류의 제시이지만, 그것은 견해 중 하나입니다.

티슬턴은 그리스어의 전치사인 죽은 자를 위한 세례를 선택하는데, 이는 부활에서 죽은 자와 연합되기를 바라는 살아 있는 자의 간증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리적 대리 세례의 변형입니다. 티슬턴의 범주에는 대리 세례의 아이디어를 포착하는 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29절에 떠다니며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그것은 1세기 로마 고린도 공동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학적 문제였다면, 바울이 그것을 확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랬던 것은 아마도 더 실용적이고 더 기능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세례가 그들을 거둬나게 한 것이 아니라, 세례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연결된 증거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연결되고, 아마도 어떤 종류의 증거적인 방식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래의 부활은 지금 고통을 유발합니다. 30절,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매 시간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순교하고 박해받는 것을 스스로 허용할까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효성을 봉인하고 사도들의

증거로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신 것을 볼 때, 부활의 현실이 없었다면 이 긴 순교자 역사가 존재했을까요? 형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영광으로 항의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저는 그 문자적 번역에 대해 약간 허가 꼬여 있습니다. 약간 단속적으로 읽힙니다. NIV, 31절, 저는 매일 죽음에 직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자랑하듯이요.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희망만으로 야수와 싸웠다면, 죽은 사람이 부활하지 않는다면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그리고 마치 손을 들어 “내일은 죽으니 먹고 마시자”는 속담을 인정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많은 문화권에서, “내일은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삶이 우리의 희망의 전부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탕으로 구원이 있고,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희생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을 마련하신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작품입니다. 모두가 에베소서 2장, 8장, 9장을 인용하지만, 10절까지는 결코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해 모든 노예처럼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타당성이 없고 따라서 구원의 타당성도 타당성이 없다면 그것은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 이하. 이별의 말이에요. 일종의 경중이에요.

그것은, 제발 현명해지세요. 속지 마세요. 사악한 교제는 좋은 도덕을 타락시킵니다.

속담에 나오는 말이에요. 제 아빠가 자주 하던 말과 비슷해요. 비슷한 종류의 새는 모여든다고요. 들어보셨나요? 우리 부모님 중 일부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을 싫어해서 우리에게 꽤 심하게 주입했을 거예요.

그러나 악한 교제는 선한 도덕을 타락시킨다. 의롭게 깨어서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다.

조금 더 매끄러운 번역을 읽어 볼게요. 그게 이 새로운 번역들이 우리를 위해 하는 일이에요. 32절이나 33절.

속지 마십시오. 나쁜 교제는 좋은 성격을 바로잡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진술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제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세요. 좋은 신학에서 벗어나는 것은 죄입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귀여운 작은 단어가 아닙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범하는 것, 즉 위반을 포괄하는 신학 용어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명예와 부끄러움의 문화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부활을 부인하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글썄, 나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 해도, 그것은 특별합니다.

하지만 저는 인간의 부활과 어떤 종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며 구원의 역사에서 그 시나리오를 봉인합니다.

그는 일어났고 우리도 일어날 것이다. 글썄, 그것이 부활의 사실에 대한 주장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 무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35~58장에는 부활체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잠시 뒤로 물러나면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두 믿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매우 논리적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영원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워 왔습니다. 심지어 1 세기에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비병들이 잠들었고 예수의 시신이 무덤에서 도난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서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처음부터 실제 부활, 기적의 사실을 부인하기 위한 변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미래의 부활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특정 부분에는 미래의 세상, 미래의 부활, 천국이라는 용어가 묘사하는 대신 영원한 잠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은 기독교 진리의 필수적인 판자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것은 그 안에 필수적인 판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파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잘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불타고 그의 재가 템스 강에 던져진 휘트클리프가,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화장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몸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무언가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글썄요, 그것은 모두 매우 흥미롭고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구성에 매우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진실은 그렇습니다 . 우리는 물리적인 몸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할 때 당신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몸은 벌레에게 먹히든 타버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인간 몸에 붙어 있는 진짜 당신은 그 지속적인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에서. 당신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있고 그 낡은 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벌레에게 먹히든 타버리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이 인간 몸에 붙어 있는 것은 그 지속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몸, 혼, 영. 하지만 혼과 영은 같은 비물질적인 부분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태를 바꾸고 바울은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당신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부활한 몸이 어떨지. 35절. 이것을 주목하세요. 하지만 누군가 말할 것입니다. 여기에 서사의 수사적 본질이 있습니다. 대화자, 바울과 논쟁하는 사람, 실제로 공동체에 있는 사람.

하지만 바울은 지금 그것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어떻게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나요? 이제 그들은 바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딜레마의 뿔에.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두 가지 문제인가? 이 구절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질문에 답하는 듯하다. 인간의 몸이 분해되었을 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것은 정당한 질문이다.

하지만 복음 전파에 대한 불신앙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요구할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불신앙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불신은 작동 용어입니다. 결국, 친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준 명제에 헌신합니다.

궁극적 현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시험관에 다시 넣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것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은 돌아와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믿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글쎄요, 정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요한 계시록은 그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마도 죽음에서 부활하여 두 증인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세가 여기에 연루되었을 겁니다. 세 증인 이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설교하고, 선포하고, 기적을 행합니다.

아니면 그들의 정신과 힘으로. 그리고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은 기적에 근거해서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와 세상을 주권적으로 조종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제시에 동의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팔을 비틀어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밀 도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확신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장이 참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과 이치에 맞출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사람들과 추론하여 그들 자신의 내부 과정에서 그 추론의 진실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들을 천국으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믿어야 하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입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그리고 어떤 형태로? Talbert는 224페이지 중간에 주석을 달았습니다.

35절에서 58절, 사실은 33절에서 58절까지는 두 개의 고린도 질문과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순서가 반대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받고, 첫 번째 질문에는 마지막에 답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하는가에 대한 답변은 이 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들이 어떤 몸에서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군가가 분해되고, 사라지고, 몸의 부활이 있다면 어떤 몸으로 돌아올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혜가 나오는데, 만약 당신이라면, 우리는 오직 신만이 줄 수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연으로부터의 논증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우리의 정신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15장 36절에서 49절까지. 흥미롭게도, 지중해 고대에 성경을 공부할 때, 적어도 1세기의 지중해 역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지중해 고대와 지금이나 이것은 부활에 대한 표준적이고 객관적인 질문입니다. 이것을 묻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고대에 부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제기될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무엇이 제시되는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신자들, 이 로마 고린도 신자들은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면에서도 그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 우리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얻습니다. 그것은 같지만 다릅니다. 36절을 보세요.

NIV를 읽어서 여기서 어색하게 들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36절. 얼마나 어리석은지 당신이 뿌리는 것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럼, 풀의 자연에 대한 호소. 죽음의 원리. 정원을 가꾸어 본 적 있나요?
저는 원예를 좋아하고, 정원을 몇 개 가꾸어 본 적도 있어요.

옥수수밭에 씨앗을 하나 가져가면, 옥수수 씨앗 하나가 땅에 심어집니다.
그것은 붕괴되지만, 그 씨앗 하나에서 줄기가 나오고, 줄기에는 적어도 두
개의 옥수수 이삭이 있고, 그 위에 수백 개의 옥수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붕괴되고,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똑같아요. 옥수수 씨앗에서 녹두를 얻을 수 없고, 옥수수 씨앗에서
완두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옥수수를 얻는다. 똑같지만 다르다. 그것이 죽음의 원리다.

농업의 자연스러운 삶의 관점에서 땅에 심으면 같은 것을 돌려받을
것이지만 다를 것입니다. 같지만 다릅니다. 부활한 몸에서의 죽음의 원리.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에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열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계속되고, 그것이 영혼이 실체라는 사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적으로, 영혼은 실체이며 영원을 통해 계속됩니다.

37절: 뿌릴 때, 밀이나 다른 어떤 것의 씨앗일 뿐인 몸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설명한 변화의 원리입니다. 38절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정하신 대로 그에게 몸을 주시며, 각 종류의 씨앗에 그
자체의 몸을 주십니다.

심은 것은 썩어 없어져도 얻는다. 하나님의 주권의 원리. 38절 하반절의
연속성의 원리. 그는 모든 종류의 씨앗 에 그 자체의 몸을 준다.

연속성이 있습니다. 동일하지만 다릅니다. 적응성의 원칙입니다.

39-41절: 모든 육신이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사람은 한 종류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동물은 다른 종류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

새는 또 다른 것이고, 물고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천체와 지상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체의 광채는 한 종류이고, 지상의 천체의 광채는 다른 종류입니다. 태양은 한 종류의 광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과 별은 다른 종류의 광채를 가지고 있으며, 별은 별과 광채가 다릅니다.

모든 별은 다르고, 모든 눈송이는 다릅니다. 그게 저를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모든 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나요? 하지만 분명히, 그게 사실입니다. 모두 다르거든요. 인간의 모든 지문이 다릅니다.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은 거대한 지문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지문이 찍혔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창조는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의 원리, 변화의 원리, 신의 연속성에 대한 주권, 창조된 종류의 적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태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어떻게 설명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42절에서 45절의 형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과 함께 할까요? 여기에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에서 인간으로 이어지는 다리입니다. 그러면 몸의 부활도 그럴까요? 껍데기 몸은 썩을 수 있습니다.

썩을 거야. 방부처리는 뭔가를 보존할 수 있지만 역사 전체에 걸쳐 그럴 수는 없어. 사람들이 포탄이나 수류탄에 의해 산산이 조각나는 전장 사망이 있지.

유명한 사람들이 화형당하고 산산이 조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사라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썩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멸로 부활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연속성이 있고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명예로 꺾매어졌습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부활합니다. 약함으로 꺾매집니다. 권능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몸으로 꺾매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225쪽.

새로운 삶의 원칙. 부패할 수 있는 것에서 부패할 수 없는 것으로. 새로운 가치.

불명예에서 영광으로. 불명예는 영광의 부재다. 시체가 무슨 소용이냐? 못생긴 거야.

슬픈 일이에요. 저는 주말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턴-세일럼의 대형 병원 응급실에서 일하곤 했어요. 하루에 300~500명을 진료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했던 주말, 자정 근무 때, 우리는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멀지 않은 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탱커가 도로에서 벗어나 폭발했고, 자동차가 사고에 연루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쌍의 커플이 있었습니다. 약혼한 커플이었습니다. 남자는 살아남았지만, 여자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EMS와 그들을 데려오던 구급차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소녀를 데려오지만, 소년이 그들 뒤에서 히스테리를 부리고 있어서 그녀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데려왔고, 내가 들것과 굵지 않은 얼굴을 보았을 때, 나는 그녀가 사라졌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히스테리컬하게 들어왔고, 간호사들이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그 청년에게 이걸 설명했고,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족은 버지니아주 로어노크에 살고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가 그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들이 그녀에 대해 물었을 때, 그 일방적인 전화 통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그녀에 대해 물었을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말은 그녀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고, 이 이야기가 일어난 60년대에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년간 결혼식을 계획해 왔고, 그 결혼식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을 공경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모님께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그들이 그를 믿지 않는 것처럼 여러 번 말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시체였지만 그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그 몸은 붕괴될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에서 여러 면에서 그 몸을 존중하지만,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원칙입니다.

그 몸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감금된 인간의 영광. 하지만 몸은 인간 존재의 진정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분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날 때,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본질은 사라지고, 몸은 쇠퇴하도록 남겨집니다. 그리고 부활에서, 새로운 몸. 43절에서 약함에서 힘으로의 새로운 힘.

그것은 영광으로 부활되고 약함으로 심겨지고 권능으로 부활됩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몸으로 심겨집니다. 그것은 영적인 몸으로 부활됩니다.

자연에서 영으로. 자연적 몸은 우리가 사는 영역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를 호흡합니다.

우리는 젖으면 젖는다고 느낀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먹는다. 하지만 영적인 몸은 유령이고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합니까? 답은 물론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도 우리는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형용사입니다. 새로운 영역에 적응된 새로운 종류의 몸을 묘사하는 형용사입니다. 예수는 부활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는 영적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긴 문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토마스는 그를 물리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영역과 새로운 도메인에 적응된 새로운 몸입니다.

연속성이 있지만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다른 몸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같습니다.

형태의 관점. 이런 종류의 말을 어떻게, 얼마나 더 훌륭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경험 영역을 넘어선다. 우리는 부활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본 사람들 외에는 인류가 목격한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학적 구성이어야 합니다.

자연과 자연의 특성을 이 부활한 몸에 비유로 사용한 건 얼마나 훌륭한가. 바울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했지만, 분명히 믿음의 요소가 있다. 44~49장에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대조가 있다.

자연적인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45절에 기록된 대로,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진흙 병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것이 왔고, 그 후에 영적인 것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한 몸을 갖기 전에 자연스러운 몸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땅의 먼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늘의 존재로 언급합니다.

지상의 사람이 그랬듯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사람이 그랬듯이, 천상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있고, 그리스도가 비교됩니다.

아담은 지상의 몸을 가졌고, 그리스도는 부활한 몸을 가졌으며, 죽는 자들은 그와 같은 부활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상의 형상을 지녔던 것처럼, 우리는 천상의 사람의 형상을 지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한 몸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신의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고 부활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영원히 그들이 있는 그대로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결코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속에서 신성한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될 것이고, 우리는 기능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영원 속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글쎄요, 저는 남부 출신입니다. 알다시피, 영원 속에서 저는 작은 시골 가게 밖에 앉아서 RC 콜라와 문파이를 먹을까요? 당신은 남부 아메리카 출신이고 밴조를 집어들어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영원 속에서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골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영원 속에서 골프를 칠 것입니까? 당신은 영원 속에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제 말은, 영원은 얼마나 긴가요? 제 말은,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 말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가진 인간으로서 당신이 영원을 통해 무엇을 할지 아십니까? 당신은 영원을 통해 학교에 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구원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근거로 지금 당장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영원 내내 뭘 할 거야? 영원은 영광스러운 인간을 위한 영원한 학습 과정, 즉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학습 과정.

당신은 결코 신에 대한 지식으로 고갈되거나 동등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은 신성한 존재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울 것입니다. 영원은 신에 대한 우리의 영원한 학습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영상을 보며 첫 천 년을 보낼 것입니다. 농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하고 싶고 그리스어와 아람어로 듣고 싶습니다. 아예 9야드까지 가는 게 낫겠죠. 좋아요, 그럼 부활한 몸이라는 공백을 채우는 게 뭔지 알겠죠? 답은 성경 신학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성경적 신학을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철저한 설명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데, 간단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장의 모든 단어를 풀어내기 위해 철자가 많이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 장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서사입니다.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하세요. 저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주장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활의 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건 제 학습과 경험의 일부가 아니거든요. 이해와 이해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그 주장을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주장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종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적이고 역사적인 패턴은 미래의 희망을 요구합니다.

지금뿐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미래가 있다는 사실에 의해 조건지어집니다.

목적론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에게 대답할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구원을 살아낼 영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답해야 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특정 노트의 후반부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노트의 후반부가 최후의 심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성경 신학의 한 측면입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루어지며, 우리는 이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왕국을 취해

아버지께 넘기십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원을 인도하시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구성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불이나 다른 것으로 지구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영원한 상태는 신이 창조한 이 지구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창조적인 구조물입니다. 이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말해주는 몇 가지 단편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파괴되지 않지만, 불로 새롭게 단장되어 구원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주지가 됩니다. 글썄요, 그게 신학이죠. 저는 그저 성경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고, 그 답변은 다소 간략하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50절에서 58절까지.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50절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살과 피라고 불리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알다시피, 우리를 필멸자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로 피를 펌핑하고 조직을 살아있게 합니다. 심장은 멈춥니다.

피가 멈췄다. 조직이 죽는다. 우리는 죽는다.

하지만 이 몸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 실체인 영원한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학적 주장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몸에서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비유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육과 피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고,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선언합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51절에서 신비 를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리스어 본문을 두 번이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이 신비에 대한
묵상,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밝혀진 신성한 비밀 . 기억하기
쉬운 매력적인 작은 문구이며 정의입니다.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지만 이제 밝혀진 신성한 비밀. 나는 당신에게
신비를 말하겠습니다. 이제 14장의 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다면 어떤 종류의 대화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 모두가 잠자지는
않겠지만,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부활에서 왔고, 그 부활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죽음과 최후의 부활 사이의 중간 상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루지 않을 또 다른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중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왕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들은
언급되었기 때문에 공간에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육체적 실체입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 잠들어 있지 않지만, 그들의 몸은 거기에 있고 아직
미래의 부활한 몸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려면 중간 상태를 공부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사용해서 보육원 벽에 걸어둡니다.

우리 모두가 잠자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가 변화할 것입니다. 귀엽긴
하지만, 적어도 이 문맥을 남용한 것입니다. 눈 깜짝할 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게 부활할 것이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마지막 최종 부활입니다. 썩을 수 있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수 있는 것은 불멸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수 있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수 있는 것이 불멸을 입으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은 승리에 삼켜졌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실례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입니다.

이제 알아들으세요. 죽음의 쏘는 것은 죄입니다. 로마서에서, 제 생각에는 5장인데, 바울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죄가 지배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의 주장 전체는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죽음은 아담의 죄, 즉 동산에서 쫓겨난 것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과 창세기의 앞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꺼내라고 요구하는 성경의 메타 서사로 돌아갑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사망의 쏘는 것은 죄이고 죄의 권세는 율법이지만, 하나님 께 감사하건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죽음은 성경 이야기의 진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 우리는 죽고 부활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항상 주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의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부활에 대한 주장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에스카톤, 바로 끝이라고 부릅니다. 종말론은 종말의 것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에 대한 연구입니다. 성경은 목적론입니다.

항상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경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는 현재에 대한 동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떨립니다. 신자로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부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티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채워질 갠 양동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컵, 티컵, 갠 양동이를 채울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이 결코 설명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려는 노력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 영원한 상태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장에서 방금 읽은 부활의 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당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같아요, 여기 풀의 설명. 아름다운 꽃과 같아요. 꺾으면 죽기 시작할 거예요.

꽃잎을 뜯어내기 시작하면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파괴했습니다. 우리는 해석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풀어내는 수백 페이지의 해설을 읽을 수 있으며,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다른 구절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 이 텍스트를 주의 깊고 면밀하게 읽는 것은 유추를 통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말해줍니다.

모든 질문에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천국에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뱀조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보장할게요. 밴조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신학 교수인 마이클 휘트머가 영원한 상태에서 제 발치에 앉아 밴조 레슨을 받을 거예요.

구약 성경 동료 중 한 명인 존 라우어도 거기에 갈 겁니다. 그리고 제 학생 중 몇몇은 제 밴조 때문에 저를 놀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영원 속의 밴조 세미나 101을 수강할 겁니다.

그냥 놀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 온갖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만, 흥미롭지 않나요, 친구 여러분? 성경은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확증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것을 동기 부여의 힘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정말로 염려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당신의 이해, 복음에 대한 당신의 설교,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윤리를 실천하는 당신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당신은 다른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물론, 인간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기심을 해결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신이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을 말씀하셨고, 그게 끝입니다. 참아내고 복음으로 바쁘게 지내세요.

그런데, 지금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지만, 복음은, 친구들이여,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부터 두 번째로 돌아오는 날까지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묘사됩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메시아적인 모든 것에 대한 큰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바쁘게 뛰어들어 풀어보세요. 글썄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그것은 신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부활에 대한 논리적 필연성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또 다른 텍스트가 있는데, 읽어볼 수 있습니다. 글썄요, 저는 몇 가지 더 많은 메모를 제공하고 싶지만, 저는 그것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절친인 데이비드 터너는 마태오 주석과 베이커 주해 주석 시리즈의 저자이며, 다른 책도 몇 권 썼고, 기사도 많이 썼습니다. 데이비드는 훌륭한 신약학자입니다. 가르치는 동안 그의 수업 중 하나가 마태복음에 관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그 수업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질문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를 나에게 공유했고, 나는 그것을 여기서 당신에게 자세히 알려서 당신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신약성서 초점에서 표면화될 수 있는 모든 텍스트의 시리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텍스트 자체만. 터너는 모든 주요 고백에서 나온 진술을 추가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지만, 그가 침례교 기관에서 이것을 했을 때 그의 맥락에 있었던 주요 고백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의 문제에 답하는 매우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 생각에는 제가 잊었는데, 229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세요.

다른 노트에 적어두었다가, 몇 가지를 추가하고 페이지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거의 여기 맨 마지막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37입니다.

237페이지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성경적 교리의 의미에 대한 일련의 성찰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강조할 뿐입니다. 저는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읽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그 모든 텍스트와 교회의 역사와 교리적 진술을 연구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안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영원한 경험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엄연한 진실이지만, 성경을 믿는 것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다음 238페이지에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우리가 지상에서 현재 사는 동안 경험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종말론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는 신이 가장 충만하고 가장 심오한 의미에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은 또한 다른 많은 것들입니다.

사실, 수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충성심에 대한 진술이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음 글머리, 우리의 죄와 죄악스러운 방식은 하나님을 깊이 불쾌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화해는 개인이 그것을 수용할 때만 효과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옥이 가지치기나 교정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뒷받침하는 성경의 증거는 없습니다. 연옥도 없고, 영원한 잠도 없습니다.

교회의 믿음에 대한 증거에 따르면, 멸절주의는 없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복음주의에서도 매우 논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본문과 교리적 진술은 확실히 그러한 견해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은 그들이 받은 계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입니다. 더욱이, 기독교 선교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 계획을 맛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38쪽 하단에는 최후의 심판의 현실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제공하신 은혜의 수단과 선포의

메시지에 더욱 충실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입맛에 맞는 문화에서 심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거의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든, 시대의 끝에 에스카톤이 도래하는 것이든, 어느 쪽이든 우리 중 누구에게나 먼저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고를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중립적이어야 합니다.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은 묻게 될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이 삶은 당신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죽음이 당신을 찾아오면, 영원이 당신을 묶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그의 죽음, 장사, 부활, 그리고 그의 재림의 약속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결정을 내릴 이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부활,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죽음으로.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선택입니다.

네, 그것은 기독교적 선택입니다. 구약성경 때문에 유대-기독교적 선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데,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당신은 그렇게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경과 그리스도와 바울과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을 재고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을 때까지 당신은 유일하신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할 모든 기회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니면 그렇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이것은 고린도전서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게리 미더스 박사입니다. 이것은 32번째 강의, 고린도전서 15장, 내세와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